

한국사의 디아스포라

① 코리안 디아스포라 입문

1차시.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2차시. 첫번째 키워드 - 차이나타운

3차시.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디아스포라 민족

4차시. 한국의 중국인 디아스포라 - 역사적 접근

5차시. 두, 세번째 키워드 - 다문화와

외국인노동자

6차시. 다시 디아스포라...



01 1.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학습 목표

- 1) '코리안 디아스포라 입문'의 강의 개관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 2) 디아스포라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 키워드를 짚어볼 수 있다.

1. 들어가기



본 강좌에서는 “짜장면은 중국음식인가? 한국음식인가?”라는 오래된 논쟁을 통해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짜장면의 유래와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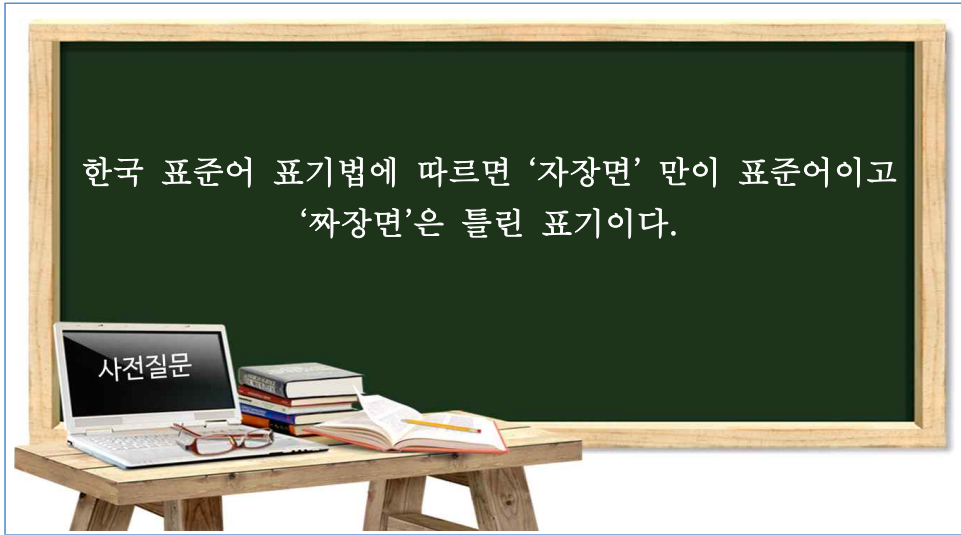
1) 중국음식이라는 설 - 중국 산둥반도 지역의 자장면(炸醬麵)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1890년대 인천항 부두노동자인 쿨리(苦力)들이 부둣가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춘장에 국수를 비벼먹기 시작하였다. 이후 청조계지를 중심으로 짜장면을 만들어 파는 중국음식점 등장하였다. 1905년 인천 개항장에서 개업한 공화춘(共和春)이 원조 짜장면집으로 인정받고 있다.

2) 한국음식이라는 설 - 춘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1948년 짜장면용 면장을 만드는 영화장유 창업되었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면장에 카라멜을 넣어 단맛이 나도록 하고 ‘사자표 춘장’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자장면(炸醬麵)과는 전혀 다른 음식 탄생하였다.

2. 준비하기



정답 (X)

3. 학습하기

1) 짜장면의 정체성

- 중국음식이기도 하고, 한국음식이기도 하다.
- 중국음식도 아니고, 한국음식도 아니다.

2)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 한민족이기도 하고, 거주국의 국민이기도 하다.
- 거주국의 민족이 아니고, 한국 국민도 아니다.

3) '경계인' - 디아스포라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 '경계의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선 위에 서서 상생의 길을 찾아 여전히 헤매고 있는 존재'(송두율, "경계인의 사색")

4. 요약하기

- 1) 디아스포라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짜장면을 선택하였다.
- 2)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경계인'으로 파악하였다.
- 3) 1주차 강좌를 통해 디아스포라 개념의 이해를 증진하고, 한인 디아스포라 학습의 중요성을 파악할 예정이다.

5. 출처